



지난 30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두산을 7대6으로 꺾고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마운드에 모여 환호하고 있다.

/잠실=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구단·감독·선수·팬 ‘사륜 구동’...‘동행 프로젝트’ 완성

연도	우승팀(감독)	우승선수(감독)	우승팀 성적
2000년 이후 기준			
2017	KIA(김기태)	두산(김경문)	○●●●● (4승1패)
2016	두산(김기태)	NC(김경문)	○●●●● (4승1패)
2015	두산(김기태)	삼성(류중일)	○●●●● (4승1패)
2014	삼성(류중일)	넥센(정동원)	○●●●● (4승1패)
2013	삼성(류중일)	두산(김경문)	○●●●● (4승1패)
2012	삼성(류중일)	SK(이만우)	○●●●● (4승1패)
2011	삼성(류중일)	SK(이만우)	○●●●● (4승1패)
2010	SK(김성근)	삼성(선동열)	●●●●● (4승1패)
2009	KIA(조범남)	SK(김성근)	○●●●● (4승1패)
2008	SK(김성근)	두산(김경문)	○●●●● (4승1패)
2007	SK(김성근)	두산(김경문)	○●●●● (4승1패)
2006	삼성(선동열)	한화(김진식)	○●●●● (4승1패)
2005	삼성(선동열)	두산(김경문)	●●●●● (4승1패)
2004	한화(김진식)	삼성(김용우)	○●●●● (4승1패)
2003	한화(김진식)	SK(조범남)	○●●●● (4승1패)
2002	삼성(김용우)	LG(김성근)	○●●●● (4승1패)
2001	두산(김경문)	삼성(김용우)	○●●●● (4승1패)
2000	한화(김진식)	두산(김경문)	○●●●● (4승1패)

타이거즈 V11 원동력 최형우 영입·과감한 트레이드·구단 지원에 팬들 일편단심 응원

‘삼박자’가 잘 떨어진 KIA 타이거즈의 2017년이었다.

올 시즌 KIA는 반전과 반전의 팀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상하지 못했던 1위 질주를 하면서 사람들을 환호시켰고, 손쉽게 1위를 확정할 것 같던 후반기에는 전반기와 다른 그들이 뛰면서 프로야구 순위싸움에 불을 붙였다.

최종전까지 가셔야 정규시즌 1위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던 KIA는 한국시리즈에서도 반전과 반전을 거듭했다.

꼭 쉬고 자신 있게 맞은 1차전에서 믿었던 헛터의 부진 속에 1차전을 내주면서 혼

들렸다. 플레오프를 뜨겁게 달궜던 두산 방망이에 타이거즈의 ‘불매 신화’가 위협받는 것 같았지만 양현종의 완봉승을 시작으로 4연승을 달리며 2017 프로야구를 종로시켰다. 물론 5차전도 7-0으로 쉽게 끝나는 것 같았지만, 1점 차의 9회 2사 만루라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올 시즌 KIA는 175일이라는 가장 오랜 시간 1위를 지킨 팀이자 가장 많은 11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룬 팀이 됐다. 감독과 선수 그리고 구단이 만든 영광의 해다.

김기태 감독의 큰 설계가 맞아떨어졌다. 김 감독은 ‘동행’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

워 지난 3년 전격 강화를 이뤘다. 많은 선수에게 기회가 돌아갔고, 본격적인 경쟁이 이뤄지면서 KIA의 선수층이 탄탄해졌다.

‘믿음’으로 선수들의 능력을 극대화한 김 감독은 과감한 트레이드로 전력의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 2015년 김광수에 이어 2016년에는 고효준이 약점으로 꼽힌 불펜에 노련함을 더했다. 올 시즌에는 넥센에서 마무리 김세현을 영입하면서 우승을 위한 마지막 점을 찍었다.

노수광으로 외야에 세바람을 넣었던 김기태 감독은 올 시즌에는 트레이드 카드를 통해 ‘톱타자’ 이명기를 만들었다. 포수 김

민식으로 센터라인도 완성하면서 우승 전력을 다졌다.

또 FA를 통해 나지완·양현종은 ‘타이거즈팬’으로 지난 2009년에 이어 2017년 우승에도 함께 했고, ‘대아’ 최형우는 타선의 폭발력도 극대화하며 우승 공신이 됐다. 김 감독의 큰 설계에는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랐다.

감독과 구단이 갈아넣은 판에서 선수들은 ‘1위’ 선수가 되어 뛰었다.

연패 상황에서도 선수들은 서로를 믿으며 의연했다. 낯선 한국시리즈 무대였지만 KIA 선수들은 과감한 승부와 밝은 분위기로 두산 덕아웃을 압도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토록 바라던 ‘V11’이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T 특독

▲야구하기 잘했어요 = 생각보다 더 감동적이었던 우승이었다. 마지막 9회 2사 만루의 위기를 넘고 우승을 확정된 KIA. 4차전 승리투수로 우승에 역할을 했던 임기영은 “이런 느낌은 처음이다. 야구하기 잘한 것 같다. 선배님들 좋아하시는 것 보니까 더 기분이 좋다. 밖에서 보니까 더 긴장됐다. 올 것 같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올지 않았다고” 생애 첫 우승 소감을 밝혔다.

▲7차전이다 생각하고 했어요 = 연승 분위기를 이어 잠실에서 끝내고 싶었던 KIA 선수들이다. 이명기도 “과곤하기도 하고 빨리 끝내야 해서 7차전이라고 생각하면서 경기를 했다. 올 시즌 트레이드되어 오면서 1군에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우승까지 했다. 놀라운 한 해다”고 웃었다.

▲영광이다 = ‘만행’ 임창용은 이번 우승으로 6번째 우승 반지를 끼었다. 20년 전이었던 1997년에 이어 다시 타이거즈 선수로 기록한 우승이라 더 의미가 있다. 임창용은 “기쁘다. 후배들이 우승을 만들어 주어서 영광이다. 고맙다. 내년에도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창용은 이날 경기가 끝난 뒤 후배들로부터 우승 행가례를 받았다.

▲이민 갈 뻔했어요 = 우승의 기쁨으로 들뜬 선수들 사이에서 미안함을 담은 눈물을 흘렸던 내야수 김주형. 이날 김주형은 대수비 역할을 맡았지만 9회 1사 2루에서 송구 실책을 하면서 결정적인 위기상황을 만들었다. 다행히 동승고 후배 양현종의 호투로 우승이 확정됐지만 동료들에

“야구하길 잘했어요” “7차전처럼” “내일은 없다고 생각” “햄스트링 사라졌어” “우승 반지 매일 끼고 다녀야지” “이민 갈뻔” “영광” “주찬이 눈 별걸던데”

게 미안해 고개를 들지 못했던 김주형은 “(경기 켜지면)이민 갈 뻔했다”며 위기를 잘 막아준 후배 양현종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우주의 기운이 확실해서 = 지난 30일은 16년 차 고효준에게도 생애 첫 한국시리즈 우승날이었다. 앞서 SK 소속으로 2009년과 2011년 한국시리즈 무대에 올랐지만 각각 KIA, 삼성에 우승컵을 내줬다. 고효준은 “세 번 만에 우승을 해서 감격스럽다. 우주의 기운이 확실해서 우리가 우승했다. 정말 꼭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우승을 했다”며 감격스러워했다.

▲반지 매일 끼고 다녀야지 = 심동섭의 생애 첫 한국시리즈는 반전의 무대였다. 지난해 심동섭은 와일드카드 결정전 엔트리에서 탈락하며 쓸쓸한 가을을 보냈다. 올해도 시즌 막바지 여객 통증으로 고생하면서 어렵게 한국시리즈 무대를 밟았다. 그리고 첫 한국시리즈에서 4경기에 나와 우승에 힘을 보탠 심동섭은 “우승해서 반지 받으면 매일 끼고 다녀겠다”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나지완이라고 또 있잖아 = KIA는 선수들만큼이나 코치진의 면면이 화려하다. 김민호 수비코치도 타율 0.387(31타수 12안타) 2타점 6도루의 맹활약으로 1995

년 한국시리즈 MVP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다. 5차전에 앞서 김민호 코치는 “당시에는 공도 수박만 하게 보이고 자신감이 넘쳤다. 한국시리즈 상대였던 롯데에 정규시즌 타율이 1할도 되지 못했었는데 이상했다. 수비를 할 때는 나에게는 공이 외라는 생각을 했고, 타석에서도 찬스가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시리즈에서 6개를 도루도 했었다”며 “한국에 40명도 없는 MVP라 의미 있다. 우리 팀에 나지완이라고 또 한 명있다”고 웃었다.

▲타격 열심히 해야죠 = 우승팀 안방마님 김민식의 야구는 11월에도 계속된다. KIA는 오는 3일부터 일본 오키나와에서 마무리캠프를 진행한다. 유망주 위주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 명단에는 외야의 이름이 포함됐다. 올 시즌 KIA의 안방마님으로 풀타임 활약을 한 김민식도 오키나와로 건너간다. 본인이 직접 자처한 마무리캠프다. 김민식은 “타격이 이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타격 열심히 해야 한다”며 캠프 참가를 자처한 이유를 설명했다.

▲햄스트링이 사라졌어 = 극적인 만루포로 5차전에서 우승을 이끌었던 이범호. 그는 앞선 4차전까지 부진하면서 마음고생을 했었다. 하지만 우승날 만루포로 데일리 MVP에 선정된 그는 “혼란을 치고

넘어갔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동안 밸런스가 좋지 않아서 제발 넘어가라고 빌었다”며 “우승 확정되고 덕아웃을 넘어서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햄스트링(부상)이 사라졌다. 이 맛에 야구를 하는 것 같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울지 않았어요 = 김주찬이 17년 만에 그러던 우승의 현장을 섰다. 그는 KIA의 캡틴을 맡아 2017시즌을 보냈다. 긴 슬럼프에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정규 시즌 1위에 이어 통합 우승까지 이루며 우승팀 주장이 된 김주찬은 “잘 해준 후배들에게 고맙다. 원하던 우승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울지 않았다”고 단호히 말했지만 ‘절친’ 이범호는 “(주찬이) 눈 별걸던데”라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김주찬은 축송회 자리에서는 “우리 선수들 고생 많았고, 코칭스태프 모두 수고하셨다. 사장님은 보너스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고 말해 행사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우승하러 왔지만 = 이적 첫째 우승의 주역이 되면서 5번째 우승을 경험한 최형우. 그는 “우승을 해서 좋다. 우승하러 왔지만 이렇게 이적 첫째 좋은 행보를 해서 기분이 좋다. 많은 선수들이 우승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다들 마음고생 뿐만 아니라 생각도 많고 복잡했을 것이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다”고 소감을 언급했다.

▲내일은 없다 = 양현종에게는 꿈같은 2017시즌이다. 통산 100승에 이어 생애 첫 20승 투수가 된 양현종은 한국시리즈 첫승을 완봉승으로 장식했다. 그리고 팀의 우승을 확정하는 세이브까지 기록하면 한국시리즈 MVP에도 등록했다. 양현종은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던졌다. 올해는 꿈을 꾸는 시즌인 것 같다”며 감격스러워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우승 공’ 어디갔니

공 내던지고 기쁨 만끽한 김민식, 행방 몰라 당황

불펜 포수 이동건이 챙겨 31일 양현종에게 건네

“그래서 공은?”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2017 한국시리즈 5차전이 열린 지난 30일, 우승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우승팀 덕아웃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우승을 위한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직접 처리한 포수 김민식의 인터뷰가 진행 중이었다. “우승공은 어디에 있는냐?”는 질문을 받은 김민식이 그라운드에서의 집착한 모습과 달리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김민식 고백에 ‘우승공’의 행방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김민식은 “마지막 공을 받으면 챙겨야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김민식은 7-6으로 앞선 9회말 2사 만루에서 김재호의 파울 플레이를 잡으며 타이거즈의 ‘V11’에 마침표를 찍었다. 아웃카운트가 확정되자 김민식은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린 뒤 미트와 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마운드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포수가 투수를 들어올리는 일 반적인 우승 세러모니와 달리 포수 김민식이 경중 뛰어서 투수 양현종의 품에 안겼다. 그렇게 우승의 기쁨에 취한 선수들은 한동안 그라운드에서 우승 세러모니를 하며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보냈다.

세러모니가 끝난 뒤에야 우승공을 생각한 김민식. 김민식 뿐만 아니라 KIA 관계자들도 “우승공은 어디 있느냐?”는 말에 놀란 표정이 됐다. 8년 만의 우승이라서 KIA 관계자들도 미처 ‘우승공’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다행히 ‘우승공’은 31일 오후 2017 한국시리즈 MVP 양현종에게 전달됐다.

8년 만의 극적인 우승에 이성을 잃었던 선수단 사이에서도 ‘매의 눈’이 있었다. 경기 마지막 순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불펜 포수 이동건이 공을 챙겨서, 양현종에게 건넨 것이다.

이동건은 “아마추어 때도 우승할 때 공을 다 챙겨놨었다. 민식이 형이 공 어떻게 하나 보면서 달려나갔는데 공을 바닥에 던지더라(웃음). 그래서 바로 공부터 주웠다”며 “야구장에서는 정신없을 것 같아서 점심 먹고 나서 현종이 형에게 전달했다. 직접 공을 전달해서 영광이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5 NC와 두산의 플레오프에서는 NC 외야수 김성욱이 팀의 창단 후 첫 포스트시즌 승리 공을 관중석으로 던지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 공도 다행히 NC 품으로 돌아왔다. 당시 외야에서 공을 받은 NC팬은 “의미 있는 공인만큼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구단에 공을 전했다.

/김여울기자 wool@